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복 성경: 마태복음 6장 25-34절

Tag: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5-34)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운명론에 빠지게 되고, 팔자를 생각하게 되고, 자괴감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유일하게 사람만 항상 무언가를 바라게 되고 그 소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면서 살아간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려고 힘써 일한다.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려고 한다.

병든 사람은 낫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왜냐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다. 그리고 그 노력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까지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동물적인 본능대로만 살아가지 않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런데 소망에는 죽은 소망이 있고, 산 소망이 있다.

죽은 소망이란 소망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면 할수록 공허해지고, 소망이 이루어져도 만족하는 순간이 짧으며, 감사하기보다는 자랑하게 되고, 친구들은 나를 떠나게 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에 싸여 살게 되고, 결국에는 덧없는 삶을 마감하게 된다.

산 소망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 더 보람있는 삶이 소망이 된다. 더 풍성한 삶이 소망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소망이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소망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삶이 산 소망을 이루는 삶이다.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  
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25절의 말씀은 삶의 중심에 관한 말씀이다. 중심이 없는 삶은 허깨비다. 예수님은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심을 바로 잡을 때, 그런 것들은 더 풍성하게 주신다고 하셨다. 다만 그것이 삶의 중심은 아니라는 것이다.

요즘은 특히 더욱 그렇다. 먹을 것에 대한 유혹이 너무 큰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을 하든 먹을 것에 대해 할 말이 많다. 특히 요즘 우리나라는 먹거리 문화에 대해서 세계적이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러다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요리 잘하는 나라가 될지 모른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이 삶의 중심은 아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 않는다. 먹는 순간은 잠깐이다. 나머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매진한다. 이게 정상이다. 무슨 일에 매진할 것인가? 나는 무슨 일로 일과를 보내는가? 그 일과는 무슨 목적이 있으며, 왜 나는 그 일을 하는가? 나는 언제 쉬며, 그 쉬는 충분한 휴식이 되는가?

과거 수렵채집 시대나, 유목민 시대나, 농경시대나, 산업시대 등 모두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위해서 온통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런 시절에 사셨으면서도 그런 일들이 삶의 중심은 아니라고 하셨다. 일주일 동안은 먹고 사느라 힘들게 일하지만, 안식일 하루만큼은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즉, 힘겨운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일상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소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된다. 그 일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보람이고, 나의 사명이다.

하지만 삶의 중심 잡기가 쉽지는 않다. 어렵지도 않지만, 쉽지도 않다. 마치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인생의 과정은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징검다리를 건널 때는 중심잡기가 가장 중요하다. 성큼성큼 건너려고 한발로 돌을 밟으면 위험하다. 조심스럽게 두 발을 모두 돌 위에 놓으면서 건너가야 한다. 그래야 중심을 잘 잡게 된다.

오늘에서 내일로, 이 계절에서 저 계절로, 이 해에서 다음 해로 건너가야 한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야 한다. 계절마다 새롭고, 학년마다 새롭다.

그 중간이 위험하고, 낮설고, 두렵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러므로 여기 머물지 말고 소망을 품고 다음 돌다리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요즘에는 익숙한 과거의 돌다리로 되돌아가려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앞으로 가려니 두렵고, 뒤로 가는 것이 쉽고 익숙하고 정겨운 길이라서 반갑다. 그러나 그 길도 세월 앞에 변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옛날의 골목길은 사라지고 없으며, 그리운 사람들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이미 그곳은 새로운 환경이고, 새로운 질서가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니 차라리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모든 인생은 새로운 길을 걷는 것이 정답이다. 다만 조심스럽게 삶의 중심을 잘 잡고 가야 한다.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  
하나

이 말씀은 새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다. 하찮은 새들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는 말씀이다. 새는 얼마나 처량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 그는 심고 싶어도 심지 못하고, 거두어 들일 창고도 없으며(어차피 숨겨 두어 봤자 빼앗긴다.), 배에는 모래가 가득차서 많이 먹지도 못한다. 이틀만 굶어도 죽으며, 심지어 방광도 없다.

정말 새들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시면 금방 죽는다.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다. 하나님이 새도 돌보시는 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으실까보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돌보아 주신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데 너무 염려하지 말고, 창고를 너무 크게 짓지 말고, 많이 심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어차피 식량 생산량이 인구 증가율을 뛰어 넘은지 오래다. 요즘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는 많은 양의 수확에는 그다지 치중하지 않는다. 더 건강하고 좋은 품종, 더 맛있고 보관에 유리한 품종에 관심이 쏠려있다.

세상이 좋아져서 이제는 우리가 심고 거두지 않아도 된다. 트랙터가 다 한다. 농지가 있어도 농사는 다른 사람이 짓는다. 그 농부도 관리만 할 뿐 트랙터 기사가 다 알아서 한다. 시골 할머니들은 포장하는 일만 한다.(물론 그렇다고 시골 사시는 분들이 편하게 산다는 말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이다.) 저장하는 것도 유통업자들이 다 알아서 하고, 그들이 때를 따라 시장에 내다 판다. 우리는 마트에 가서 사오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이다. 더 저렴하게 더 편리하게 식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

###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7절 말씀은 세속적이며, 세상적인 일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요즘은 염려하는 것들의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지구온난화를 많이 염려한다.

암에 걸릴까봐 염려한다. 병들어 고생할 것을 염려한다.(죽을까봐가 아니라. 물론 결국 죽지만) 가난하게 살게 될까봐 염려한다.

(덴마크의 통계학자(비외른 톰보르) 중에서 좌파였는데 온난화를 연구하다 보니 별 근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책을 냈다.(회의적 환경주의자-이 세상의 실제 상황을 직시하다. 1072쪽. 환경반역서. 2003. 2004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 중 한명. 농약이 암 발생에 거의 영향 미치지 않음. 염소는 암 발생 요인이 아님. 오히려 콜레라위험 커짐.)

좌파 사람들은 부자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할까봐 염려하고, 우파 사람들은 환경론자들의 공포분위기에 귀를 막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까봐 걱정한다. (우리나라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낸단다.-이 사람들 불쌍하고, 안타깝다.)

그 키를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그 수명을 한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두가지 번역이 있다.)

-키를 한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는 성장(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

-전체적인 삶의 질에 관한 말씀? 염려하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애쓰고 힘쓰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32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사람이 악을 버리고, 신뢰를 쌓고, 부지런히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염려를 확산하면 그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마6:25-34)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